

[1 ~ 3]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 최근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관련 부처에 계신 김 과장님과 ○○대학교 최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김 과장님,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 과장** : 요즘 신용 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현금 거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6.9 %가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동전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데 비용이 여전히 많이 듭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동전 없는 사회를 실현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진행자** : 동전 제조나 유통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 과장** : 매년 새 동전을 제조하는 데만 500억 원 정도 듭니다. 거기에 유통 비용까지 더하면 1,000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

**진행자** : 그럼, 최 교수님께서 동전 없는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 교수** : 물론 동전을 없애면 동전의 제조와 유통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90원짜리 상품이 1,000원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 네, 동전의 제조와 유통 등과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는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시군요. 그러면 김 과장님, 최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 과장** : 요즘 판매점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전략상 가격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동전을 교환해 주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최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물가 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까요? 동전을 없애면 불편을 겪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최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 교수** : 당연히 불편을 겪을 사람들이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에 거스름돈을 충전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불편할 것입니다.

**김 과장** : 통계 자료에 의하면 □□도는 94 %, △△시는 85 % 이상이 교통 카드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편을 겪을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청취자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게시판의 공지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담의 진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담에서 다룰 내용을 소개하며 대담을 시작하고 있다.
- ② 대담자를 지정하여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③ 대담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④ 대담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언급하며 대담을 이어가고 있다.
- ⑤ 대담 내용을 자신이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질문하며 확인하고 있다.

2. 대담의 진행 과정을 고려하여 두 대담자의 발화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 과장 :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② 최 교수 : 동전을 없앴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김 과장과 다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 ③ 김 과장 : 경제적 요인을 근거로 삼아 최 교수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 ④ 최 교수 :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자가 언급한 내용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⑤ 김 과장 :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최 교수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3. 대담의 진행자가 선정할 추가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지 사항>

※출연자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을 올려 주세요. 대담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선정되지 않습니다.

↳ **경제1등**

동전 보관에만 1,000억 원씩이나, 정말? ..... ①

↳ **이게머니**

동전이 없으면 거스름돈은 어떻게 받나요? ..... ②

↳ **거스름돈**

이미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 ③

↳ **동전좋아**

동전도 중요한데 차라리 1,000원짜리 동전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 ④

↳ **부자되자**

500원짜리 동전이 예전에는 지폐였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 ⑤

[4~5] 다음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한 발표의 일부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은 일상에서 순서를 정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청중들의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흔히들 가위바위보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이 가위바위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04년 일본의 한 회사가 내놓은 200억 상당의 미술품을 경매하는 업체가 가위바위보로 결정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위바위보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가위바위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가위바위보는 중국 또는 인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들어왔고 아동 문학가 윤석중 선생이 가위바위보라는 우리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세계 가위바위보 협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아마 처음 듣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캐나다에 있는 세계 가위바위보 협회에서는 가위바위보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거액의 상금을 걸어 국제 대회를 개최하고 승리의 전략을 연구하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큰 목소리로) 가위바위보! (더 큰 목소리로) 다시, 가위바위보! 어때요, 이기셨나요? 가위바위보에서 항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패배하지 않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2016년 2월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 사람들은 가위바위보를 할 때 처음에 바위를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를 내는 것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둘째, 승유패변의 법칙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승유패변의 법칙이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다음 판에서도 같은 것을 낼 확률이, 비기거나 진 사람은 다음 판에서 다른 것을 낼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 외에 자기가 낼 것을 미리 말한 뒤 똑같은 것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겠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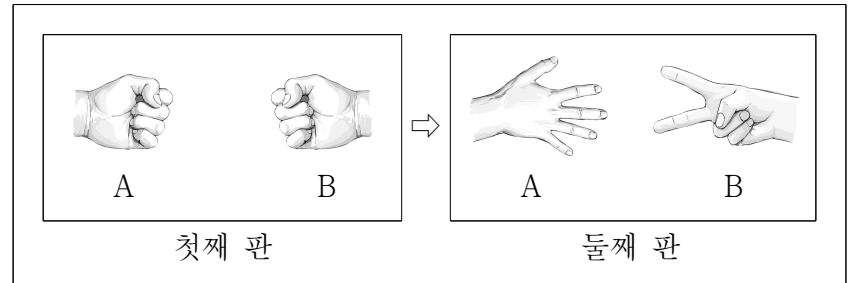
(화면을 가리키며) 이 그림에서 A와 B는 승유패변의 법칙에 따라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제가 알려 드린 승리의 전략을 떠올리며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4. <보기>는 발표자가 세운 발표 계획이다. 실제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ㄱ. 청중과 함께했던 추억을 환기하며 발표를 시작해야겠어.
  - 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해야겠어.
  - ㄷ. 반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참여를 유도해야겠어.
  - ㄹ.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해야겠어.
  - ㅁ.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상호 작용해야겠어.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5. 다음은 발표자가 마지막에 제시한 그림이다. 이 발표를 들은 청중이 그림을 보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와 B가 첫째 판에서 모두 바위를 낸 것은 첫째 판에 바위를 낼 확률이 높다는 설명에 부합하는군.
- ② A가 첫째 판과 달리 둘째 판에서 보를 낸 것은 비긴 사람은 다음 판에 다른 것을 낼 확률이 높다는 설명에 부합하는군.
- ③ B는 둘째 판에서 가위를 내서 A에게 이겼으니, 셋째 판에서도 다시 가위를 낼 확률이 높겠군.
- ④ 만약 B가 셋째 판에서도 가위를 낸다면, A에게 비기거나 이길 확률이 높겠군.
- ⑤ 만약 A가 둘째 판을 시작할 때 B에게 보를 낼 것이라고 미리 말했다면, B는 가위를 내지 않았을 확률이 높겠군.

[6~8] 다음은 동아리 문학 기행 감상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 작문 상황

문학 기행에 대한 감상을 학교 누리집 동아리 활동란에 쓰기 위해 작문 계획을 세우고 감상문을 작성함.

#### ■ 초고

우리 동아리에서는 봄맞이 문학 기행으로 영월 청령포에 다녀왔다. 청령포는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를 가 비운의 삶을 ㉠ 마치게 되었다. 동아리에서 이문구의 소설 「매월당 김시습」을 읽고 작품에 대해 토의를 하다가, 당시 단종의 슬픔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껴 보고자 동아리원들과 의견을 모아 직접 그곳을 찾게 되었다.

영월역에서 버스로 15분쯤 이동한 후, 나무에서 청령포로 가는 배를 탔다. 마음이 강 물결처럼 ㉡ 설레인다. 청령포는 서강이 삼면을 휘돌아 흐르고, 한쪽이 절벽으로 가로막혀 있어 배를 타지 않고는 드나들 수 없는 곳이다. 마치 육지 속 외로운 섬과 같이. 봄별이 쏟아져 반짝이는 수면이 기대감에 부푼 부원들의 얼굴처럼 환하다.

배에서 내려 모래톱을 지나면 소나무들 사이로 산책 길 나타난다. 봄바람이 소나무 숲을 지나서 산들산들 불어온다. 아! 솔향기, 봄이다. 저 앞으로 단종 어가가 보인다. ㉢ 그러나 참 이상한 소나무도 다 있다. 다른 소나무들은 곳곳하게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데, 담장에 허리를 굽히고 꼭 임금을 뵈는 신하의 모습처럼 비스듬히 자랐다. 부원 한 명이 소설에 등장하는 영월의 호장 엄흥도 ㉣ 같다라고 혼잣말을 했다. 어린 단종은 밤이면 두려움과 외로움에 슬프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 애가 타서 출입을 금하는 명을 어기고 헤엄쳐 강을 건너가 단종을 위로한 엄흥도.

노산대는 서강을 따라 솟아 있는 산봉우리들이 보이는 절벽가에 있다. 어린 임금은 해질 무렵이면 여기에 올라 봉우리들 너머 그 너머에 있는 한양 쪽을 바라보면서 다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㉔ 붉은 노을을 보면서 생이별을 한 아내 정순왕후를 그리워했을 단종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노산대에서 망향탑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우리는 ‘청령포’로 삼행시를 짓기로 했다. 시를 지으며 단종의 마음을 떠올려 본다. 소나무 한 그루, 풀잎 하나, 그리고 봄바람 한 자락에도 그 마음이 서려 있다. 청령포 봄빛이 싱그럽고 완연하여 더욱 애잔하다.

그 때문일까? 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봉된 단종을 영월까지 호송하고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왕방언이 지었다는 시조가 떠올랐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임 여의웁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며 밤길 가는구나

6. 학생의 작문 계획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기행지와 관련된 인물과 문학 작품을 활용한다.
- ② 기행지의 지리적 특징을 묘사하여 이해를 돕는다.
- ③ 문화 유적으로서 기행지의 보존 상황을 언급한다.
- ④ 문학 기행을 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⑤ 장소의 이동에 따라 견문이나 감상이 드러나게 한다.

7. ㉑~㉔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마쳤다’로 고친다.
- ② ㉒: 어법을 고려하여 ‘설렌다’로 고친다.
- ③ ㉓: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그런데’로 수정한다.
- ④ ㉔: 간접 인용임을 고려하여 ‘같다고’로 고친다.
- ⑤ ㉔: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면서’ 뒤에 ‘,’를 추가한다.

8. ‘초고’의 뒤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맞게 추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조 건 >
- 문학 기행이 갖는 의미를 드러낼 것.
  - 자연물을 통한 감정이입을 활용할 것.

- ① 소쩍, 소쩍, 소쩍새가 슬피 우는 곳. 서쪽의 한양을 그리워하며 단종이 눈물 흘리던 청령포를 떠나왔다.
- ② 한양을 그리워하며 단종이 눈물을 흘리던 곳. 청령포에 가면 비극적 역사의 한쪽을 가슴에 담아 볼 수 있다.
- ③ 소설 속 단종의 슬픔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던 청령포 기행. 단종의 애사에 가슴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날의 강물은 여전히 슬피 울며 흐르고 있었다.
- ④ ‘청령포’는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에 가면 삶의 배움이 있다는 뜻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문학의 깊은 향기를 맡아보길 바란다.
- ⑤ 단종의 슬픈 사연이 전해지는 청령포를 알고 있는가? 그곳에 가면 술향기 속 단종의 애달픈 이야기를 떠올리며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9~10] 다음은 학교 신문 편집부의 요청 사항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기사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 학교 신문 편집부의 요청 사항

- 사회적 관심이 높은 ‘오투오(O2O) 서비스’를 제재로 할 것.
- ‘표제-전문-본문’의 형식을 갖추고 세부 내용은 ‘기사 검토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

## ■ 학생의 초고

**표제** 오투오 서비스의 개념과 등장 배경

**전문** 최근 오투오 서비스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 본문

‘오투오(O2O: Online to Off-line)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어디에서든 실시간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편리함 때문에 최근 오투오 서비스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으로 택시를 부르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오투오 서비스 운영 업체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매개로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자는 홍보 및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함으로써, 오투오 서비스 운영 업체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오투오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사업자의 경우 관련 법규가 미비하여 수수료 문제로 오투오 서비스 운영 업체와 마찰이 생기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오투오 서비스 운영 업체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업체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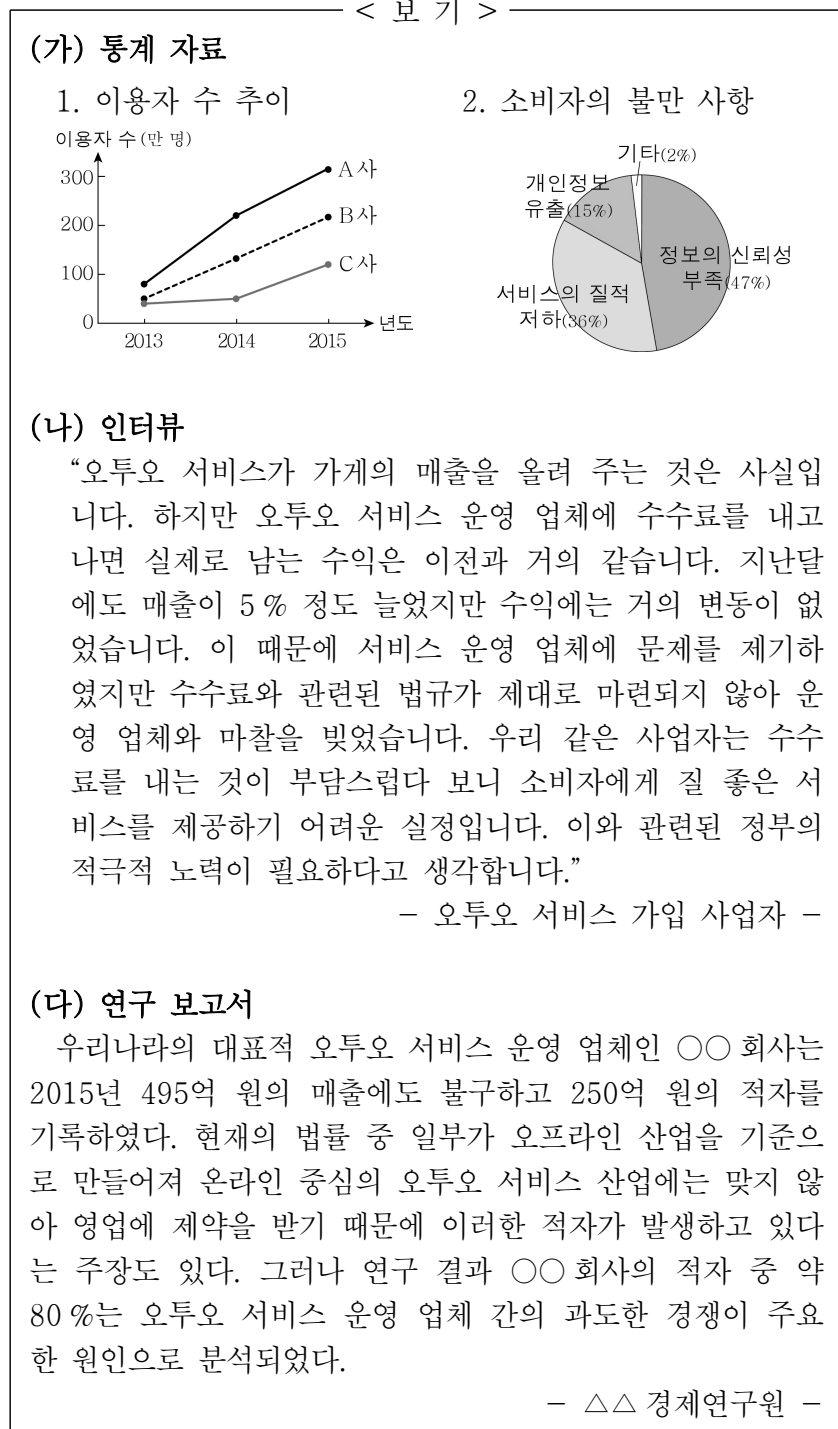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는 오투오 서비스에서 제공한 정보가 믿을 만한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사업자는 수수료와 관련된 오투오 서비스 운영 업체와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오투오 서비스 운영 업체 역시 기존 업체들과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오투오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 앞으로 오투오 서비스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9. 다음은 학교 신문 편집부가 제시한 ‘기사 검토 항목’이다. 이에 따라 ‘초고’를 검토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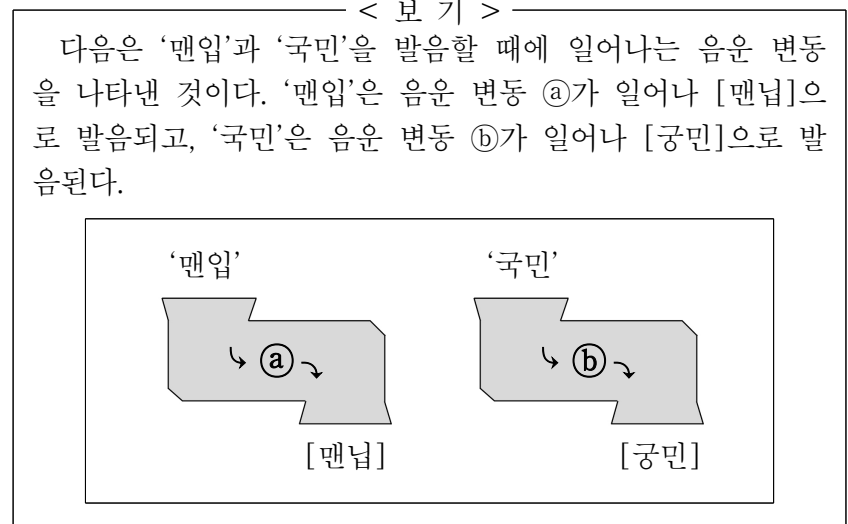
	기사 검토 항목	예	아니요
①	‘표제’는 전체 내용을 포괄할 것.		✓
②	‘전문’은 핵심 내용을 요약할 것.		✓
③	‘본문’에 제재의 개념을 설명할 것.	✓	
④	‘본문’에 제재의 사례를 소개할 것.		✓
⑤	‘본문’에 제재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것.	✓	

10. <보기>는 ‘오투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여 ‘초고’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1을 활용하여 ‘본문’ 첫째 문단에 오투오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본문’ 셋째 문단에 사업자가 오투오 서비스 운영 업체와 수수료 문제로 마찰을 겪고 있는 사례를 구체화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본문’ 셋째 문단에 오투오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오투오 서비스 운영 업체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추가한다.
- ④ (가)-2와 (나)를 활용하여 ‘본문’ 넷째 문단에 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의한 소비자의 불만을 낮추기 위해 수수료와 관련된 법규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본문’ 다섯째 문단에 오투오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규제의 완화가 오투오 서비스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다.

11. <보기>의 설명에 따를 때, 음운 변동 ㉠, ㉡가 모두 일어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 ① 막일      ② 담요      ③ 낙엽      ④ 곡물      ⑤ 강약

12. 제시된 탐구 과정을 고려할 때, [A], [B]에 들어갈 ㉠~㉣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3점]

탐구 주제	밑줄 친 말을 문장 성분과 품사를 기준으로 분류하시오. • 이것은 ㉠ 새로운 글이다.      • 이것은 ㉡ 새 글이다. • 그는 ㉢ 빠르게 달린다.      • 그는 ㉣ 빨리 달린다.
탐구 관련 지식	• 관형어는 체언을, 부사어는 용언을 한정하는 기능을 함. • 형용사는 관형어나 부사와 달리 활용을 함. • 관형사는 명사를, 부사는 동사를 수식함.
탐구 결과	문장 성분에 따라 [A]로 분류할 수 있다.      품사에 따라 [B]로 분류할 수 있다.

- |   | [A]         | [B]          |
|---|-------------|--------------|
| ①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⑤ | ㉠, ㉢ / ㉡, ㉣ | ㉠, ㉢ / ㉡ / ㉣ |



나 너무나 드센 팔자를 타고나서 뼈가 다른 남매를 또 다른 의붓아비 그늘에서 길렀더니 이제 비로소 자식과 함께 산 지 채 이 년이 못 되어 이번에는 자식 때문에 죽었다..... 더군다나 자식은 당신으로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죄명 아래 갇히고, 거기다가 당신은 생모이면서도 법적인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마저 금지되어 자식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당신의 병이라는 것도 화병으로 쓰러진 것이 원인이 되어 반신불수로 죽는 날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한 그릇의 물을 떠 놓고 그 앞에 꿇어앉아서 나는 어머니에게 찾아든 단말마의 순간에 어머니가 반신불수의 몸을 뒤틀며 나를 향해 부르짖었을 외마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았다.

“그만 울구 일어나. 몸두 성치 않으면서..... 다 지난 일 아녀?”

이 선배가 내 한쪽 팔을 붙들며 일으키며 말했다. 나는 아직도 눈물이 흘러나오는 두 눈을 손잔등으로 씻으며 새삼스럽게 어머니의 산소를 둘러보았다.

내가 어머니의 죽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를 생각한 것은 단식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무렵이었다. 어떤 종교를 지닌 것도, 그렇다고 사후의 세계나 영혼의 존재를 굳게 믿는 것도 아닌 나로서는 어머니가 단말마의 순간까지 품고 있었을, 그러다가 외마디 소리로 나에게 남기고 갔을 예의 한에 대해서 전혀 속수무책이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러한 자신의 무력감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래, 돌아가셨군 하고, 쉽게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는 더욱이나 없었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나서부터 아무런 생각 없이 날마다 어머니에게 떠 올렸던 물 한 그릇만으로 하루를 견뎌 내던 나는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비로소 자신의 단식에 대해서 의미를 붙였다.

종수다. 당신의 죽음이 한스러운 만큼 나도 거기에 못지않겠수.

나는 그때 누구보다도 바로 어머니에 대해서 이를 악물었음 것이었다. 나는 굶어 죽을 결심이었다. 어머니가 나에게 남기고 간 한에 대해서 나는 그런 식으로나마 이겨 내고 싶었다. 어머니의 한에 대한 자신의 무력감이 이제는 한 그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번져 갔는지도 몰랐다.

열흘째 되는 오후 무렵이었다. 나는 창문 바로 옆에 누워 쏘아져 들어오는 초가을의 햇살을 아득한 시선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언제부터 시작된 지 모르게 웅웅 귀를 울리는 이명과 함께 담장 밖 버드나무 숲에서 늦매미가 울어 대고 있었다. 나는 절반쯤은 잠이 든 상태에서 꿈결에서인 듯 나의 이명과 늦매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그런 소리들에 겹쳐서 문득 어떤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어화, 이놈의 세상을 어이 넘어갈까나.....

어머니였다. 여섯 살 무렵이던 나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눕혀져 있었다. 늦봄의 긴 오후 나절을 뒷마루에 앉아서 어머니는 청얼대는 나를 달래며 시름겨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극심한 흉년 끝에 닥친 보릿고개를 견디다 못한 어머니와 누님과 나 이렇게 세 식구는 논가의 웅덩이에 있는 물풀을 건져다 밀기울에 버무려 죽을 쑤어 먹고, 그중에 어렸던 내가 물풀에 독이 올라 온몸이 뚱뚱 부은 채 거의 죽어 가는 중이었다. 그런 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머니는 굵은 눈물을 툇툇 흘리며 육자배기의 느린 가락으로 시름을 달래고 있었다. ㉠ 어머니의 노랫소리는 나의 이명처럼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며

계속해서 들려왔고, 나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베개를 흠뻑 적셨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감옥에서 나와 월문리에 들렀다가 어머니의 죽음이 자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서울로 돌아온 후 폭음으로 몸과 정신이 쇠약해진 ‘나’는 답답한 마음과 응어리진 슬픔을 안고 다시 월문리를 찾는다.

어머니의 산소 앞에 있는 꽤 큰 덩치의 ㉡ 아카시아 숲이 시야를 답답하게 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무리다 싶으면서도 낮을 대었다. 톱이 없이 낮만으로는 역시 무리여서 대충 윗가지나 쳐내고 말려고 했는데 차츰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좀 더 아카시아 나무의 밑동에 손을 대자 역시 예감대로 봉분의 형태가 드러나는 것이었다. 나는 기진맥진해 가면서도 결국 아카시아 숲을 모두 쳐냈다. 그것이 봉분임을 확인한 순간 나는 너무 지친 나머지 어머니 산소 앞에 벌렁 나자빠져 버렸다. 문득 잘했다,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어린애처럼 자랑스러운 기분으로 몸을 뒤집어 어머니의 산소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화해합시다.”

산소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정오가 지난 무렵이었다. 나는 마치 어머니의 산소 앞 아카시아 숲을 쳐내듯이 집 안팎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안채의 방문을 고쳐서 다시 달고, 창호지를 구해다가 새로 문을 바르고, 마룻바닥에 커처럼 내려앉은 먼지들을 씻어 내고, 뒤주에서 죽어 있는 몇 마리의 쥐새끼들을 꺼내어 파묻고, 안방에 나 있는 쥐구멍들을 막았다. 내가 부엌의 무너진 부뚜막까지 마저 고쳐서 다시 무쇠솥을 올려놓았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때 아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문간방에 누워 있었다. 처마 기슭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차츰 무성해지고 있었다. 나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부자리를 들고 안채로 건너갔다. 방안을 들어서며 내가 말했다.

“이런 밤엔 혼자 자기가 서로 외로운 법 아니우?”

나는 평소에 어머니의 잠자리였던 ㉢ 아랫목 바로 옆에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다. 그러자 나는 마치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끝까지 와 버린 것처럼 깊고 아득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자리에 누워서 나는 어느 사이에 자신이 바로 이 폐가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느 사이에 나는 또다시 어머니와 내가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메, 내 새끼야아.

처마 기슭에서는 여전히 ㉣ 낙숫물 소리가 무성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울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망망한 그리움이였다. 그러다가 나는 잠이 들었고, 나는 꿈을 꾸었다.

고향의 장터였다. 장을 보는 사람들로 붐비는 어물전 부근이었다. 서른 언저리의 젊은 여자가 양옆에 어린 남매를 데리고 앉아서 좌판을 벌여 놓고 있었다. 좌판에는 갈치며 고등어 몇 마리가 텅그마니 올려져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여자는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에 나는 잠이 깨었다. 여자는 내가 까마득히 잊고 있던 옛 여자였다. 잠이 완전히 깨고 난 다음에 나는 그 여자가 나의 새로운 어머니라고 생각했다.

— 송기원, 「다시 월문리에서」 —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물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② 각 장면마다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을 긴장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며 그와 관련된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순행적 구성을 통해 인물들의 갈등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여 사건의 전모를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머니의 산소에서 ‘나’가 어머니에게 건넨 “이제 화해합시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한과 어머니에 대한 ‘나’의 한을 연관 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내적 갈등을 느끼던 ‘나’가 다시 월문리로 돌아와 어머니의 산소와 폐가를 정리하는 행동은, 어머니의 기구한 삶과 한을 받아들이며 ‘나’의 한을 풀어 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잊고 있었던 젊은 시절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어머니와 화해를 이루게 된다.

- ① ‘나’가 ‘빠가 다른 남매를 또 다른 의붓아버지 그늘에서’ 기른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는 부분에서, 어머니가 살아온 기구한 삶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나’가 법적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머니가 감옥에 갇힌 ‘나’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에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한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나’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며 독방에서 굶어 죽을 결심으로 단식하는 것에서, 어머니의 한을 받아들이며 ‘나’의 한을 풀어내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나’가 다시 월문리로 돌아와 어머니의 폐가를 손질한 후 어머니와 한 몸이 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에서, ‘나’가 어머니의 삶을 수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나’가 어린 남매를 데리고 앉아 있는 꿈속의 ‘젊은 여자’를 ‘나의 새로운 어머니’로 생각하는 것에서, ‘나’가 마음속에서 어머니와 화해를 이루었음을 엿볼 수 있겠군.

18.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나’가 어머니를 떠올리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공간이다.
- ② ㉡은 ‘나’에게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애달픈 심정을 환기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나’의 답답한 심정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는 소재이다.
- ④ ㉣은 ‘나’가 어머니의 자취를 느끼며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⑤ ㉣은 어머니로 인해 겪었던 ‘나’의 고달픈 경험을 연상하게 하는 소재이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외모도 남에 비해 그리 빠지지 않고  
바느질 솜씨 길쌈 솜씨도 좋건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자란 까닭에  
좋은 중매 자리 나를 몰라준다오.

[A]

춡고 굶주려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창가에서 배만 짚다네  
오직 내 부모님만 가엾다 여기실 뿐  
그 어떤 이웃이 이내 속을 알아주리오.

[B]

밤이 깊어도 베를 짜는 손 멈추지 않고  
베틀 소리만 빼각빼각 처량하게 우네  
베틀에 짜여 가는 이 한 필 비단  
끝내는 어느 색시의 옷이 되려나.

[C]

가위로 싹둑싹둑 옷감을 마르노라면  
추운 밤에 손끝이 곱아 오네  
시집가는 누군가를 위해 길옷을 만들고 있지만  
이내 몸은 해마다 홀로 잔다오.

[D]

- 허난설헌, 「빈녀음(貧女吟)」 -

(나)

이 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닭이 울어서 귀신이 제 집으로 가고 육보름달\*이 오겠습니다. 이 좋은 밤에 시꺼먼 잠을 자면 하얗게 눈썹이 센다는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육보름이면 옛사람의 인정 같은 고사리의 반가운 맛이 나를 울려도 좋듯이 허연 영감 귀신의 호통 같은 이 무서운 말이 이 밤에 내 잠을 쫓아 버려도 나는 좋습니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 초롱 맑게 핀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냇내같이 오릅니다.

나는 이제 이 긴긴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다.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했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꽤고 키가 호리낭창했습니다. 그가 열 살이 못 되어 젊디 젊은 그 아버지는 가슴을 앓아 죽고 그는 아름다운 젊은 홀어머니와 둘이 동지선탈에도 눈이 오지 않는 따뜻한 이 낡은 항



구의 크나큰 기와집에서 그늘진 풀같이 살아왔습니다.

어느 해 유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새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총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겨서 수선이라고 했습니다. 그제는 나도 기뻐서 그를 비겨 수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갑니다. 그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의 병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의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워 놓아야 하겠습니다.

밤이 아직 쉼 때가 멀고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새 형짚이나 얻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 집집이 안간으로 사랑으로 윗간에도 만윗간에도 누방에도 허청에도 고방에도 부엌에도 대문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 켜듯하니 불을 켜 놓고 복을 맞이하는 밤입니다.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디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밤물을 먹고 도야지 깃을 들썩이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긴다고 벌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에 옹패기에 찰락찰락 물을 길어 오며 별 같은 이야기를 재깁재깁하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오느라고 달을 보고 웃어 가며 살기같이 여우같이 부잣집으로 가서는 날쌔기도 하게 기왓골의 기왓장을 벗겨 오고 부엌의 솔뚜껑을 들어오고 곱새담\*의 짚날을 뽑아 오고.... 이렇게 허물없는 즐거움 속에 끼득끼득하는 그들은 산에서 내린 무슨 암짐승들이 되어 버리는 밤입니다. 그러다는 집으로 들어가서 마음 고요히 세 마디 달린 수숫대에 마디마디 쿵 한 알씩을 박아 물독 안에 넣는 밤인데 밝은 날 산골이라는 윗마디, 중산이라는 가운데마디, 해변이라는 밑마디의 그 어느 마디의 쿵이 붙는가를 보고 그 어느 고장에 풍년이 들 것을 점칠 것입니다. 그러다는 닭이 울어서 새 날이 되면 아홉 가지 나물에 아홉 그릇 밥을 먹으면, 먹으면 몸 술썰기\*가 쓴다는 김치와 먹으면 김멜 때 비가 온다는 물을 자꾸 먹고 싶어 하는 밤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보름의 아침이 됩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해 뜨기 전에 동리 국수당의 스무나무 가지를 썬 오려서 가시가지에 하얀 솜을 피우고 그 솜발 속에 며칠 앞서부터 스물이고 서른이고 만들어 놓은 울긋불긋한 각시와 새하얀 할미를 세워서는 굴통 담에 곱새담에 장독담에 꽃아 놓는데, 이렇게 하면 이 해에는 하루같이 목화밭에서 천 근 목화가 난다고 믿는 그들이 새 옷의 스적이는 소리도 좋게 외좋은 짝패들끼리 끼리끼리 밀려다니며 담장마다 머물러서는 목화 따는 할미며 각시와 무슨 이야기나 하는 듯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닭이 우나?) 아, 닭이 읊니다. 나는 이만 이야기를 그치고 복밥을 기다리는 얼마 아닌 동안 신선과 고사리와 수선화와 **병든 내 사람**이나 생각하겠습니다.

- 백석, 「편지」 -

\* 육보름달: 정월 대보름날 밤에 뜨는 가장 둥근 달을 의미함.

\* 곱새담: 풀 짚으로 만든 담.

\* 술썰기: 소나무 송충이.

19.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주체와 객체를 전도시켜 삶의 덧없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이상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연쇄적 표현을 활용하여 정서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 시적 맥락을 고려하여 (가)의 [A] ~ [D]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가난한 집안’ 사정은 [B]의 ‘하루 종일 창가에서 베만’ 짜야 하는 구체적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군.
- ② [A]의 ‘좋은 중매 자리’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은 [D]의 ‘해마다 홀로’ 자야 하는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했군.
- ③ [B]의 ‘어떤 이웃’도 알아주지 않는 ‘이내 속’은 [C]의 ‘처량하게 우’는 ‘베틀’에 투영되어 있군.
- ④ [C]의 ‘베틀에 짜여 가는 이 한 필 비단’은 [D]의 ‘옷감을 마르’는 힘겨운 일상에 위안을 주고 있군.
- ⑤ [D]의 ‘길옷을 만들고 있’는 상황은 [C]의 ‘어느 색시’의 처지와 대비되어 서글픔을 심화시키고 있군.

21.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노란 슬픔의  
이야기

㉡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

㉠은 사랑하는 여인을 수선화에 빗대어, 그녀에 대한 애련한 심정을 섬세한 필치로 담고 있다. 그리고 ㉡은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풍속에 대한 기억을 현재형 진술을 통해 촘촘히 불러냄으로써, 일제 강점기, 사라져 가는 고유의 풍속과 민족 정서를 복원하고, ‘지금’, ‘여기’에서 재현될 수 있는 어울림의 공동체를 지향하고자 했던 백석의 문학 세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 ① ‘수선화 한 폭’은 글쓴이의 내면을 ㉠의 추억으로, ‘알록달록한 각시’는 ㉡의 기억으로 이어주는 매개적 기능을 하는군.
- ② 화제가 ㉠의 ‘그’에서 ㉡의 ‘새악시 처녀들’로 확대되면서 글의 애상적인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군.
- ③ ‘병든 내 사람’을 비유한 시들어가는 ‘수선’은 ㉠의 ‘노란 슬픔’에서 환기되는 이미지와 연계되고 있군.
- ④ ㉡에서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의 풍속에 대한 기억을 열거하면서 민족 공동체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군.
- ⑤ ㉡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밤입니다’와 같은 현재형 진술로 반복한 것은 기억 속의 세계가 ‘지금’, ‘여기’에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군.



[22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북을 치면 소리가 난다. 북을 쳤을 때 북의 가죽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공기가 진동하여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때 공기가 가죽의 진동을 받아 생기는 진동수가 크면 높은 음이, 작으면 낮은 음이 난다. 그리고 공기의 진폭이 크면 강한 소리가, 작으면 약한 소리가 난다. 스피커도 이와 같은 원리로 전류의 진동수나 진폭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 재생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스피커로는 다이내믹 스피커가 있다. 다이내믹 스피커는 영구 자석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이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수직 방향을 이루도록 하여 진동판을 움직이는 힘이 위아래로 ㉡ 작용하게 함으로써 소리를

재생하는 메커니즘을 갖는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왼쪽의 <그림>에서와 같이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수직을 이룰 때 생성되는 힘이 자기장과 전류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이내믹 스피커의 주요 부품으로는 영구 자석, 탑 플레이트, 보이스 코일, 보빈, 진동판, 댐퍼, 폴피스 등이 있다. 영구 자석은 자기장을 형성하고, 탑 플레이트는 이 자기장을 보이스 코일 방향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보이스 코일은 보빈에 감겨 있는 도선으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영구 자석이 형성하는 자기장과 상호 작용을 하여 생성되는 힘이 보이스 코일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한다. 보이스 코일에 고정되어 있는 보빈은 보이스 코일이 받는 힘을 진동판에 그대로 전달하여 소리를 재생하게 한다. 댐퍼는 스피커의 외형을 이루는 단단한 프레임에 보빈을 지지시켜 보빈에 감겨 있는 보이스 코일이 위아래로 ㉢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보이스 코일의 중심을 잡아 준다. 그리고 폴피스는 전류가 흐르면서 보이스 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을 영구 자석과 탑 플레이트로 ㉣ 분산시켜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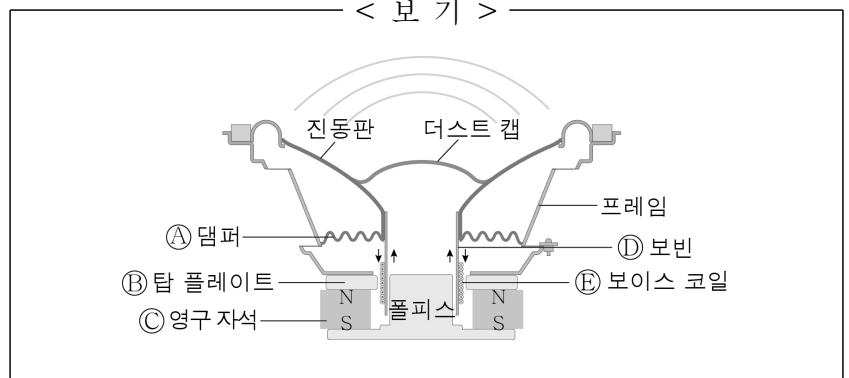
다이내믹 스피커에서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보이스 코일이 위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이면서 진동판을 진동시켜야 한다. 진동판의 반복 운동은 전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교류 전류를 보이스 코일에 흘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영구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은 동일하지만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교류 전류의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보이스 코일이 받는 힘이 이전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진동판이 위아래로 반복 운동을 하며 소리가 재생된다.

한편 자기장(B)과 전류(I)의 세기가 커짐에 따라 보이스 코일에 작용하여 진동판을 진동시키는 힘(F)은 커진다. 그런데 영구 자석에서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항상 ㉤ 일정하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소리의 크기는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22. ‘다이내믹 스피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류는 보이스 코일에서 열을 발생시킨다.
- ② 보이스 코일과 보빈이 움직이는 방향은 동일하다.
- ③ 전류의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소리를 재생하지 못한다.
- ④ 보이스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보이스 코일이 힘을 받는다.
- ⑤ 보이스 코일이 받은 힘은 전류와 자기장의 상호 작용을 유도한다.

23. <보기>는 ‘다이내믹 스피커’의 단면도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프레임에 보빈을 지지시켜 보이스 코일의 중심을 잡아 준다.
- ② ㉡: 영구 자석이 형성하는 자기장을 보이스 코일 쪽으로 향하도록 제어한다.
- ③ ㉢: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영향을 받아 자기장을 반대 방향으로 전환시킨다.
- ④ ㉣: 보이스 코일이 받는 힘을 진동판에 전달하여 진동판을 진동시킨다.
- ⑤ ㉤: 교류 전류의 방향 전환에 따라 보빈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한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이퀄라이저는 특정 주파수 대역의 음을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하여 음악에 따라 음색을 조절하며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예를 들어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때는 저음 대역에 해당하는 전류의 ( ㉠ ) 방법을 통해 스피커에서 나오는 저음을 강화할 수 있다.

- ① 세기를 크게 하는
- ② 진폭을 작게 하는
- ③ 방향을 전환시키는
- ④ 진동수를 크게 하는
- ⑤ 진동수와 진폭을 작게 하는

25.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물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갈려 나와 생김.
- ② ㉡: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
- ③ ㉢: 거침이 없이 잘되어 나감.
- ④ ㉣: 갈라져 흩어지거나 그렇게 되게 함.
- ⑤ ㉤: 어떤 것의 크기나 범위 등이 하나로 정하여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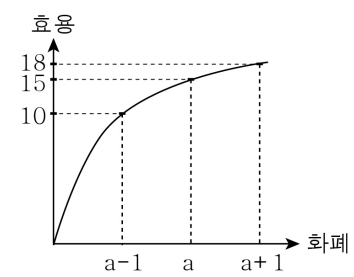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금융 상품에는 주식,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유형의 투자 상품이 있다. 그 중 주식은 예금에 비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의 가능성이 크고, 예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얻지만 손실의 가능성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금융 상품을 선호한다. 금융 회사는 이러한 고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투자 상품을 추천한다. 그렇다면 금융 회사가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금융 회사는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를 기준으로 고객들을 위험 추구형, 위험 회피형 등으로 분류한다. 투자의 기대 효용이란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기댓값으로, 투자 수익에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과 투자 손실에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의 총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금융 상품 ㉠에 500원의 비용을 들여 투자할 때 40%의 확률로 2,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60%의 확률로 투자한 500원을 모두 잃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이 상품의 기대 효용은 투자 수익인 2,000원에 40%를 곱한 값( $2,000 \times 0.4 = 800$ )과 투자 손실인 -500원에 60%를 곱한 값( $-500 \times 0.6 = -300$ )의 총합인 500원이 된다.

고객들의 투자 유형은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용과 투자를 하지 않고 화폐를 보유할 때의 효용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투자보다 화폐 보유를 선호하면 위험 회피형이고 투자를 통한 기대 효용을 선호하면 위험 추구형이다. 즉, 투자한 500원을 모두 잃을 수 있음에도 금융 상품 ㉠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위험 추구형이고, 손실을 우려하여 500원을 투자하지 않고 화폐로 보유하려는 사람은 위험 회피형이다.

이처럼 기대 효용이 같더라도 소비자들이 보이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를 한계효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왼쪽 그래프는 어떤 사람이 느끼는 화폐에 대한 효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투자에 성공해서 화폐가 a에서 a+1로 1단위 증가할 경우 한계효용은 15와 18의 차이인 3이 된다. 반대로 투자에 실패하여 화폐가 a에서 a-1로 1단위 감소할 경우 한계효용은 15와 10의 차이인 5가 된다. 이 사람은 투자에서 성공했을 때 오는 만족(3)보다 투자에서 실패했을 때 오는 불만족(5)을 더 크게 인식하므로 투자를 하지 않는 위험 회피형의 성향을 보일 것이다. 만일 ㉠ 투자 실패로 인한 불만족보다 투자 성공으로 인한 만족을 더 크게 여기는 경우에는 위험 추구형 성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금융 회사는 이러한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분류하여 위험 회피형인 고객에게는 예금과 같이 안전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하고, 위험 추구형인 고객에게는 손실의 위험이 있더라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추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융 상품을 추천했을 때, 금융 회사는 더 많은 고객들과 더 많은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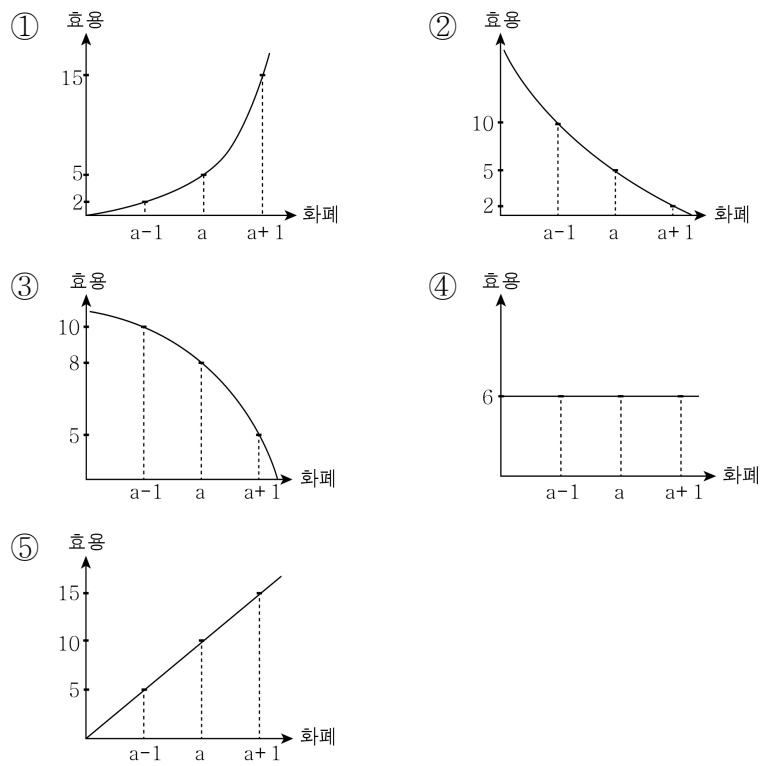
금융 회사는 이러한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분류하여 위험 회피형인 고객에게는 예금과 같이 안전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하고, 위험 추구형인 고객에게는 손실의 위험이 있더라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추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융 상품을 추천했을 때, 금융 회사는 더 많은 고객들과 더 많은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 한계효용: 일정한 종류의 재화가 잇따라 소비될 때 최후의 한 단위로 부터 얻어지는 심리적 만족도.

26. 밑글에서 언급된 정보가 아닌 것은?

- ① 투자 상품의 유형                      ② 기대 효용의 계산 방법
- ③ 투자 성향의 판단 기준              ④ 투자 성향의 분류 효과
- ⑤ 투자 상품의 다양화 방안

27. ㉠과 같은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의 화폐에 대한 효용 그래프로 적절한 것은?



28.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귀하는 5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거나 다음의 두 상품 중 하나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 어느 경우를 더 선호하십니까?  
(단위: 만 원)

	투자 비용	투자 수익	수익을 얻을 확률	기대 효용
A 상품	50	450	20 %	50
B 상품	50	200	40 %	50

	A 상품	B 상품	현금 보유
갑		✓	
을	✓		
병			✓

- ① ‘갑’은 ‘병’에 비해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선호하겠군.
- ② ‘갑’과 ‘을’은 화폐를 보유하기보다 투자를 통해 얻는 기대 효용을 선택하였군.
- ③ ‘을’은 ‘갑’에 비해 투자할 때 위험을 더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는군.
- ④ ‘병’은 ‘갑’과 달리 A 상품이 B 상품보다 투자 실패 확률이 더 크다고 보겠군.
- ⑤ ‘병’은 ‘을’에 비해 투자 성공의 만족보다 투자 실패의 불만을 더 크게 인식하겠군.

[29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논리학은 논증에서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학문이다. 논리학을 학문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기원전 3세기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논증의 일반적인 원리를 연구함으로써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언 문장으로 이루어진 연역 논증을 중심으로 논리학을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논리학을 ㉠ 전통 논리학이라 부른다. 연역 논증은 결론이 이미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형식의 논증을 말한다. 그리고 정언 문장이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중에서 ‘주어-술어’로 이루어진 다음 네 가지 형식의 문장을 말한다.

- 모든 A는 B이다.
- 모든 A는 B가 아니다.
- 어떤 A는 B이다.
- 어떤 A는 B가 아니다.

(1)은 연역 논증의 하나로 세 개의 정언 문장으로 구성된 정언 삼단 논증의 예이다.

(1) 모든 [아버지]는 [남자]이다. <전제1>  
 어떤 [사람]은 [아버지]이다. <전제2>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남자]이다. <결론>

(1)에서 결론의 주어가 되는 개념인 ‘사람’을 소명사(S), 결론의 술어가 되는 개념인 ‘남자’를 대명사(P)라 하며, ‘아버지’와 같이 전제에만 있으면서 전제들을 엮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중명사(M)라 한다. 만약 술어가 ‘걷는다’와 같이 동사인 경우에는 ‘걷는 존재’와 같은 명사(名辭)\*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대명사가 포함된 전제를 대전제, 소명사가 포함된 전제를 소전제라 한다. 이를 사용하여 (1)을 형식화하면 (2)와 같다.

(2) 모든 [M]은 [P]이다. <대전제>  
 어떤 [S]는 [M]이다. <소전제>  
 그러므로 어떤 [S]는 [P]이다. <결론>

정언 삼단 논증에서 중명사(M)는 전제들 사이에서 소명사(S)와 대명사(P)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만약 전제에 중명사가 없으면 소명사와 대명사를 연결시킬 수 없으므로 논증을 구성할 수 없다. (2)에서 결론의 [S]-[P]는 배열이 고정되어 있지만, 전제의 ‘M, P, S’는 배열이 자유롭기 때문에 ‘M, P, S’를 조합해서 ㉡ 정언 삼단 논증의 네 가지 유형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언 삼단 논증의 제1격에서부터 제4격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와 같이 정언 문장을 대명사, 중명사, 소명사로 분석한 전통 논리학을 명사 단위의 논리학이라 한다.

그런데 (3)은 정언 삼단 논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언 삼단 논증의 유형에서 벗어나 있다.

(3) 만약 비가 온다면, 소풍은 취소된다. <전제1>  
 비가 온다. <전제2>  
 그러므로 소풍은 취소된다. <결론>

<전제1>은 ‘비가 온다.’와 ‘소풍은 취소된다.’의 두 문장이

결합된 것이다. <전제2>는 <전제1>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 중 하나이며, <결론>은 <전제1>을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문장이다. 따라서 정언 문장만을 대상으로 한 전통 논리학으로는 이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없다.

20세기 독일의 논리학자 프레게는 소명사, 대명사, 중명사를 중심으로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언 삼단 논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명제를 단위로 논증을 분석하는 ㉢ 명제 논리학을 제안하였다. 명제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다. 전통 논리학에서는 정언 문장을 명사 단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지만, 명제 논리학에서는 명제 자체를 논증의 기본 단위로 삼았다. 그리고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명제를 단순 명제라 하여 ‘p, q, r’ 등의 기호로 표시하고, 단순 명제에 논리적 연결사인 ‘∨(또는)’, ‘∧(그리고)’, ‘→(만약 ...이면 ...이다)’, ‘∼(...가 아니다)’ 등을 사용하여 복합 명제를 만들었다.

가령 (3)의 <전제1>은 ‘비가 온다.’와 ‘소풍은 취소된다.’의 두 개의 단순 명제가 연결된 복합 명제로, 각각의 단순 명제를 ‘p’와 ‘q’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단순 명제 ‘p’와 ‘q’는 ‘만약 ...이면 ...이다.’에 해당하는 논리적 연결사 ‘→’를 사용하여 ‘p→q’와 같은 복합 명제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3)을 기호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만약 p이면 q이다. (4') p → q  
 p이다. ⇒ p  
 그러므로 q이다. q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언 문장에서 명사들 간의 관계에 의존하여 논증의 타당성을 설명하였지만, 명제 논리학에서는 명제들의 진릿값과 논리적 연결사에 의존하여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했다. 가령, ‘p∨q’는 ‘p’와 ‘q’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지만, ‘p∧q’는 ‘p’와 ‘q’ 모두 참일 때에만 참이 된다. 또한 ‘p→q’는 ‘p’와 ‘q’가 모두 참인 경우에는 참이지만, ‘p’가 참이고 ‘q’가 거짓인 경우에는 거짓이 된다. 따라서 복합 명제의 진릿값은 단순 명제의 진릿값과 논리적 연결사에 의존한다. (4')는 <전제2>가 <전제1>의 선행 조건인 p를 긍정함으로써 <결론>인 q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논증인데, 이러한 형식을 ㉣ 전건 긍정이라 한다.

명제 논리학은 정언 문장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전통 논리학에서 다루지 못하는 문장들까지 논증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논증의 모든 요소를 기호화하여 ㉤ 명제 논리학은 자연 언어를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후 명제 논리학은 술어 논리학으로 발전되었는데, 술어 논리학은 술어 기호를 사용하여 명제 논리학에서 다루지 못한 명제 내의 논리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논리학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시켰다.

\*명사(名辭): 하나의 개념을 언어로 나타내며 명제를 구성하는 데에 요소가 되는 말.

29.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리학의 발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논리학의 의의를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 ③ 논리학의 특징을 인접 학문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 ④ 논리학의 논증 방식이 단순화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⑤ 논리학의 변화에 영향을 준 여러 학문을 고찰하고 있다.

30.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연역 논증에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이 된다.
- ② 전통 논리학은 정언 문장을 명사 단위로 분석한다.
- ③ 주어와 술어로 구성된 모든 문장은 정언 문장이다.
- ④ 명제 논리학은 명제 자체를 논증의 기본 단위로 삼는다.
- ⑤ 술어 논리학은 명제 내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여 논증한다.

31. ㉠과 ㉡의 입장에서 <보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전제1>	민수는 일하거나 논다.
어떤 사람은 생명체이다.	<전제2>	민수는 일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죽는다.	<결론>	민수는 논다.

- ① ㉠: ㉠에서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는 ‘모든 [생명체]는 [죽는 존재]이다.’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② ㉠: ㉠에서 ‘생명체’는 전제에만 나타나므로 증명사이고, ‘사람’은 결론의 주어가 되는 개념이므로 소명사이다.
- ③ ㉡: ㉡에서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를 ‘만약 생명체라면 죽는 존재이다.’로 재구성한다면, 이는 ‘ $p \rightarrow q$ ’의 구조에 해당한다.
- ④ ㉡: ㉡의 <전제1>은 복합 명제에, <전제2>는 단순 명제에 해당한다.
- ⑤ ㉡: ㉡의 ‘민수는 일하거나 논다.’를 기호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논리적 연결사가 필요하다.

32.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                            |                            |
|----------------------------|----------------------------|----------------------------|
| ① $\frac{M-P}{S-M}$<br>S-P | ② $\frac{P-M}{S-M}$<br>S-P | ③ $\frac{P-M}{M-S}$<br>S-P |
| ④ $\frac{M-P}{P-S}$<br>S-P | ⑤ $\frac{M-P}{M-S}$<br>S-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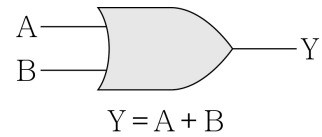
33.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차가 달리지 않으면 멈춘다. 차가 달린다. 그러므로 차가 멈추지 않는다.
- ② 만약 그것이 생명체라면 죽는다. 그것이 죽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명체이다.
- ③ 비가 오면 가뭄이 끝난다. 아직 가뭄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가 오지 않았다.
- ④ 교실 청소가 끝나면 집에 갈 수 있다. 교실 청소가 끝났다. 그러므로 집에 갈 수 있다.
- ⑤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른다. 철수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철수는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34. <보기>는 ㉠을 심화 학습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논리 게이트는 ‘1’과 ‘0’의 이진법 정보로 운용되는 전자 회로로 명제 논리학에 착안하여 만들어졌다. 입력값이 ‘1’인 것은 명제의 진릿값이 참인 경우에, 입력값이 ‘0’인 것은 명제의 진릿값이 거짓인 경우에 대응될 수 있다. 논리 게이트는 두 개의 입력 단자 ‘A’, ‘B’와 하나의 출력 단자 ‘Y’로 구성된다. <그림>은 논리 게이트 중 ‘OR 게이트’이다.



이는 ‘A’와 ‘B’ 중 하나 이상의 입력값이 ‘1’이면 출력값이 ‘1’이 되고, 입력값이 모두 ‘0’이면 출력값이 ‘0’이 되는 경우이다. 이 외에 ‘A’, ‘B’의 입력값이 모두 ‘1’일 때만 출력값이 ‘1’이 되는 ‘AND 게이트’도 있다.

- ① 논리 게이트에서 입력 단자 ‘A’, ‘B’는 명제 논리학의 단순 명제, 출력 단자 ‘Y’는 복합 명제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논리 게이트에서 입력값에 의해 출력값이 결정되는 것은 명제 논리학에서 단순 명제의 진릿값과 논리적 연결사에 의해 복합 명제의 진릿값이 결정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겠군.
- ③ ‘OR 게이트’의 ‘ $A + B$ ’를 명제 논리학의 논리적 연결사로 기호화하여 나타내면 ‘ $A \vee B$ ’에 해당하겠군.
- ④ ‘OR 게이트’는 명제 논리학에서 두 명제 중 적어도 하나의 진릿값이 참일 때 결론의 진릿값이 참인 경우에 해당하겠군.
- ⑤ ‘AND 게이트’에서 ‘Y’가 1인 것은 명제 논리학에서 두 명제의 진릿값 중 하나라도 참인 경우에 해당하겠군.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섬유 예술은 실, 직물, 가죽, 짐승의 털 등의 섬유를 오브제로 사용하여 미적 효과를 구현하는 예술을 일컫는다. 오브제란 일상 용품이나 자연물 또는 예술과 무관한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하여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의미한다. 섬유 예술은 실용성에 초점을 둔 공예와 달리 섬유가 예술성을 지닌 오브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섬유 예술이 새로운 조형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한 결정적 계기는 1969년 제5회 ‘로잔느 섬유 예술 비엔날레전’에서 올덴버그가 가죽을 사용하여 만든 「부드러운 타자기」라는 작품을 전시하여 주목을 받은 것이었다. 올덴버그는 이 작품을 통해 공예의 한 재료에 불과했던 가죽을 예술성을 구현하는 오브제로 활용하여 섬유를 심미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섬유 예술은 평면성에서 벗어나 조형성을 강조하는 여러 기법들을 활용하여 작가의 개성과 미의식을 구현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에 바스케트리, 콜라주, 아상블라주 등이 있다. 바스케트리는 바구니 공예를 일컫는 말로 섬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꼬기, 엮기, 짜기 등의 방식으로 예술적 조형성을 구

현하는 기법이다. 콜라주는 이질적인 여러 소재들을 혼합하여 일상성에서 탈피한 미감을 주는 기법이고, 아상블라주는 콜라주의 평면적인 조형성을 넘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과 폐품 등을 혼합하여 3차원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콜라주와 아상블라주는 현대의 여러 예술 사조에서 활용되는 기법을 차용한 것으로, 섬유 예술에서는 순수 조형미를 드러내거나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인류 문명의 한 단면을 상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섬유를 오브제로 활용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라우센버그의 「침대」가 있다. 이 작품에서 라우센버그는 섬유 자체뿐 아니라 여러 오브제들을 혼합하여 예술적 미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침대」는 캔버스에 평소 사용하던 커다란 침대보를 부착하고 베개와 퀼트 천으로 된 이불, 신문 조각, 잡지 등을 붙인 다음 그 위에 물감을 흘뿌려 작업한 것으로, 콜라주, 아상블라주 기법을 주로 활용하여 섬유의 조형적 미감을 잘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35. 윗글에서 언급된 ‘섬유 예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섬유를 예술성을 지닌 심미적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 ② 올덴버그를 통해 조형 예술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 ③ 섬유의 오브제로서의 기능을 자각하면서 시작되었다.
- ④ 바스켓트리는 섬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조형성을 구현한다.
- ⑤ 순수한 미의식을 배제하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예술을 지향한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라우센버그가 창작한 「모노그램」이다. 라우센버그는 나무 판넬에 물감을 칠하고 나무 조각이나 신발 굽 등 버려진 물건들을 부착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 털이 풍성한 박제 염소를 놓고 그 염소의 허리에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타이어를 끼워 놓았다. 이 작품을 통해 생명체가 산업화로 인해 위협 받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 ① 박제 염소의 털을 활용한 것에서 섬유를 하나의 예술 매체로 인식하는 섬유 예술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나무 조각이나 신발 굽, 염소, 타이어 등은 작가의 예술적 미의식을 구현하는 데 활용된 오브제로 볼 수 있군.
- ③ 콜라주 기법이 주는 3차원적 입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버려진 여러 가지 물건들을 부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판넬 위에 염소를 세워 놓은 것에서 아상블라주 기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염소의 허리에 끼워진 타이어를 통해 생명체를 위협하는 산업 사회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군.

[37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화소설(寓話小說)은 동물을 인격화하여 풍자를 바탕으로 교훈을 전달하는 작품을 말한다. 동물들의 언행을 통해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인간 세계의 진면목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주제를 드러내는 서사 양식이다. 우화소설의 주요 유형으로는 소송 사건을 다루는 송사형 소설과 시비를 가리는 쟁론형 소설 등이 있다.

우화소설은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 주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대립 구도는 소설의 갈등을 부각하는 서사적 장치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또한 동물의 외형이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인물을 형상화하며, 구어나 비속어 또는 기지나 재치 있는 언술을 활용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화소설은 이러한 소설적 형상화 방식을 통해 **인간 세태에 대한 풍자**를 드러내는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서대주전」은 쥐를 의인화한 대표적 우화소설이다. 서대주가 타남주가 모아 놓은 밤을 몰래 훔치자 타남주가 서대주를 관가에 고소하는 사건을 통해 당대 관리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별주부전」은 용왕이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자라를 시켜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오는 사건을 통해 인간의 잘못된 본성과 지배층의 횡포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두 작품들과 같이 우화소설은 동물을 소재로 하여 인간의 부정적인 면모나 봉건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풍자한다. 즉 우화소설은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어 인간에게 필요한 윤리 의식과 도덕적 교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사회상을 모색하려는 문학적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사령이 데리고 가 옥졸(獄卒)에게 넘겨주자, 옥에 끌어들여 단단히 가두고 돈을 내라 졸라댔다. 서대주는 갖고 온 물건을 옥의 수졸(守卒)에게 많이 주자, 수졸들이 대단히 좋아하며 큰 칼을 풀어 주어 편히 쉬게 하고, 하인과 같이 돌봐 주는 것이었으니, 돈이 마르면 귀(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서대주가 곤하여 누워 있으니, 대서(大鼠)는 그 손을 주무르고, 중서(中鼠)는 그 다리를 안마하고 동서(童鼠)는 그 허리를 밟으며 대주의 심란스러운 바를 위로하며, 대추, 밤 등속의 것을 주어 요기시키면서 밤을 새우니, 이것을 보는 자가 배를 움켜잡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다음 날에 주춧가 두 자리 크게 설치하고, 둘을 잡아들여 동서(東西)로 나누어 끓여얹히고, 책상을 치며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네 이놈, 조그마한 것이 잔악하기도 심하게 남의 물건을 하루 저녁에 다 도적질해 갔다 하는데, 그게 정말이나? 바른대로 말할 것이지, 다소라도 거짓말이 있다면 당장에 엄한 형벌로 무겁게 치죄를 할 것이다.”

라고 형리가 고성으로 소리치니, 그 소리가 우렁차, 담보가 큰 자라 하더라도 놀래어 겁을 낼 지경이었는데, 더군다나 죄가 있는 약한 자로서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서대주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는 별별 떨리는 것이었으나, 겉으로는 일상과 같이 태연히 정신을 진정하고 안색을 변치 않고서 우리러보며 대소(大笑)하고,

(중략)

“저는 본시 대대로 부유하여 이와 같은 흉년에 한 홉조차 다른 것들한테 꾸지 않아도 되는데, 빌어먹는 놈의 밤을

흠뻏다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이놈의 평상시 소행을 제  
가 하나하나 다 아뢰겠나이다. 매년 봄여름이 되면 농사 잘  
짓는 자들을 널리 구하여 밤낮으로 가을걷이를 한 후에는,  
그들 중에서 절름발이, 도둑놈, 귀머거리, 맹인, 쓸모없는  
늙은 할미는 쫓아내어 흠어지게 하였는데, 또 봄여름이면  
이와 같이 그대로 하였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이들을 마  
에 떠돌아다니는 거지가 되게 하여, 보는 자가 차마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짓을 행하였기 때문에 분개하는 바  
가 있었습니다. 마침 사냥하러 나갔을 때, 소토산 원편의  
용강산(龍岡山) 기슭에서 만나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기에

[A] 그 행실머리 없음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 후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알지 못한 채 항상 분노  
의 마음을 품고는, 사리에 맞지 아니한 터무니없는 말로 저  
를 얹어매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송사를 꾀했으니, 세상  
천지에 이와 같은 맹랑하고 무뢰한 놈이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매우 졸렬하기는 하지만 역시 대대로 공훈이 있는 가  
문의 후손으로서, 이러한 무도하고 못난 놈한테 구차하게  
고소를 당하여 선조의 공훈에 더럽힘을 끼치고 관정을 소  
란스럽게 하오니, 죽으려고 하여도 죽을 만한 곳이 없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옵니다. 밝게 살피시는 원님께 앞  
드려 바라건대, 사정을 살피시어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서대주가 옷섶을 고쳐 여미며 단정히 꿇어앉았는데, 뽕죽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쪽거리며 두 눈이 깜짝거리면서  
두 손을 모아 슬피 빌고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시니, 보는  
자가 더할 나위 없이 애처롭고 불쌍하다고 할 만한 것이었다.

원님이 서대주의 진술하는 말을 들으니 말마다 사리에 꼭  
들어맞고, 형세가 본디부터 그러하여 죄를 주기도 어려워, 결  
박한 것을 풀고 씩은 큰 칼을 벗겨 주고는, 술을 내려 주어 놀  
랜 바를 진정케 하고 특별히 놓아주었다. 타남주는 도리에 어  
긋난 간악한 소송을 한 죄로 몽둥이 세 대를 맞고 멀리 떨어  
진 외딴 섬으로 귀양을 가니, 서대주가 거듭거듭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갔다.

서대주는 후에 수백의 여자를 취(娶)하고 자손이 번성하여  
주(州), 군(郡), 현(縣), 읍(邑), 향려(巷閭), 향곡(鄉谷)에 살  
지 않음이 없고, 그들은 다 도적질로 생활을 하며, 세상의 아  
동, 적은 것들, 부녀 또는 가마 메는 줄부 등이 만나기만 하면  
죽여 버리니, 이것은 즉 서대주가 사람을 해친 마음에 대한 앙  
갚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 작자 미상, 「서대주전(鼠大州傳)」—

(다) 이때에 뜰아래 섰던 군사들이 일시에 달려들려 하니 토  
끼 무단히 허욕을 내어 자라를 쫓아왔다가 수국원혼이 되게  
되니 이는 모다 자취(自取)한 화라,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한하리오. 세상에 덕없이 명리(名利)를 탐하는 자는 가히 이것  
을 보아 징계할지로다.

이때에 토끼 이 말을 들으며 청천벽력이 머리를 깨치는 듯  
정신이 아득하여 생각하되 ‘내 부질없이 영화부귀를 탐내어 고  
향을 버리고 오매 어찌 이 외의 변이 없을소냐. 이제 날개가  
있어도 능히 위로 날지 못할 것이오, 또 축지(縮地)하는 술법  
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때를 벗어나지 못하리니 어찌하리오.’  
또 생각하되, ‘옛말에 이르기를 죽을 때에 빠진 후에 산다 하  
였으니 어찌 죽기만 생각하고 살아 갈 방책을 헤아리지 아니  
하리오.’ 하더니 문득 한 피를 생각하고 이에 얼굴빛을 조금도  
변치 아니하고 머리를 들어 전상을 우러러보며 가로되,

“소토(小兎) 비록 죽을지라도 한 말씀 아뢰리다. 대왕은 천  
승의 임금이시오 소토는 산중의 조그마한 짐승이라 만일  
소토의 간으로 대왕의 환후 십분 나으실진대 소토 어찌 감  
히 사양하오며 또 소토 죽은 후에 후장하오며 심지어 사당  
까지 세워 주리라 하옵시니 이 은혜는 하늘과 같이 크신지  
라, 소토 죽어도 한이 없사오나 다만 애달픈 바는 소토는  
비록 짐승이오나 심상한 짐승과 다르와 본디 방성정기를  
타고 세상에 내려와 날마다 아침이면 옥같은 이슬을 받아  
마시며 주야로 기화요초(琪花瑤草)를 뜯어 먹으며 그 간이  
진실로 영약이 되는지라. 이러하므로 세상 사람이 모두 알  
고 매양 소토를 만난즉 간을 달라하와 보첩이 심하옵기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와 염통과 함께 끄집어 청산녹수  
맑은 물에 여러 번 씻사와 고봉준령 깊은 곳에 감추어 두  
옵고 다니옵다가 우연히 자라를 만나 왔사오니 만일 대왕  
의 환후 이러하온 줄 알았던들 어찌 가져오지 아니 하였으  
리오.”

[B]

하며 또 자라를 꾸짖어 가로되,

“네 임금을 위하는 정성이 있을진대 어이 이러한 사정을 일  
언반사도 날 보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거늘 용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꾸짖어 가로되,

“네 진실로 간사한 놈이로다. 천지간에 온갖 짐승이 어이 간  
을 출입할 이치가 있으리오. 네 얄은 피로 과인을 속여 살기  
를 도모하니 과인이 어이 근리(近理)치 아닌 말에 속으리오.  
네 과인을 기만한 죄 더욱 큰지라. 빨리 너의 간을 내어 일  
변 과인의 병을 고치며 일변 과인을 속이는 죄를 다스리리  
라.”

토끼 이 말을 듣고 또한 어이없고 정신이 산란하며 간장이  
없고 가슴이 막히어 심중에 생각하되 속절없이 죽으리로다 하  
다가 다시 웃으며 가로되,

“대왕은 소토의 말씀을 다시 자세히 들으시고 굽어 살피옵  
소서. 이제 만일 소토의 배를 갈라 간이 없사오면 대왕의 환  
후도 고치지 못하옵고 소토만 부질없이 죽을 따름이니 다시  
누구에게 간을 구하오려 하시나이까. 그때는 후회막급할실  
터이오니 바라건대 대왕은 세 번 생각하옵소서.”

용왕이 이 말을 듣고 또 그 기색이 태연함을 보고 심중에  
심히 의아하여 가로되,

“네 말과 같을진대 무슨 간을 출입하는 표적이 있는가.”

토끼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이 생각하되 이제는 내 살아날  
도리 꽤히 있도다 하고 여쭙오되,

“세상의 날짐승 가운데 소토는 홀로 하체에 구멍이 셋이 있  
사오니 하나는 대변을 통하옵고 하나는 소변을 통하옵고 하  
나는 특별히 간을 출입하는 곳이니이다.”

— 작자 미상, 「별주부전(龍主簿傳)」—



37. (가)에서 언급한 ‘우화소설’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동물을 의인화한 이야기로서 송사형과 쟁론형 등의 유형이 있다.
- ② 구어나 비속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봉건 사회의 잘못된 이념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 ④ 시비를 다투는 사건을 제시하여 인물 간의 대립적 가치관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⑤ 계층 간의 갈등과 해소라는 전형적인 서사 구조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상을 제시한다.

38. (가)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 서대주의 모습을 뽐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쭉거린다고 묘사한 것은 ‘동물의 외형’을 반영한 것이겠군.
- ② (나)에서 타남주가 섬으로 귀양을 가도록 결말을 구성한 것은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윤리 의식’을 강조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서대주의 자손들이 사람에게 양값음을 당한 것은 올바른 삶에 대한 ‘도덕적 교훈’을 제시한 것이겠군.
- ④ (다)에서 토끼와 용왕의 대립 구도를 설정한 것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다)에서 토끼가 하체에 간이 출입하는 특별한 구멍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것은 등장인물의 ‘기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39. (가)의 인간 세태에 대한 풍자를 바탕으로 (나), (다)의 인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수졸’을 통해 뇌물을 받는 부패한 관리를 풍자하고 있다.
- ② (나)의 ‘서대주’를 통해 타인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는 간사한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
- ③ (나)의 ‘원님’을 통해 시비를 올바르게 가리지 못하는 무능한 판관을 풍자하고 있다.
- ④ (다)의 ‘토끼’를 통해 부귀영화를 꿈꾸는 인간의 허황된 욕심을 풍자하고 있다.
- ⑤ (다)의 ‘용왕’을 통해 민중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권력자의 횡포를 풍자하고 있다.

40. (나)와 (다)의 공통된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건 전개 과정에서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독백적 진술을 중심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 ③ 액자식 구성을 활용하여 인물의 삶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 ④ 과장된 비유를 반복하여 현재 상황의 급박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⑤ 현재와 과거 사건을 교차하며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고 있다.

41. (나)의 [A]와 (다)의 [B]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무고를 당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자신의 선행을 나열하며 남들과 다른 면모를 역설하고 있다.
- ③ [A]는 특정 인물의 부당한 행동을, [B]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는 설득의 의도를 담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청자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42. (다)에 나타난 ‘토끼’의 태도를 평가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기응변(臨機應變)으로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는군.
- ② 원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고육지책(苦肉之策)을 모색하는군.
- ③ 현재의 굴욕적인 상황을 참아 내며 와신상담(臥薪嘗膽)하고 있군.
- ④ 권토중래(捲土重來)의 마음으로 지난날의 실패를 만회하려 하는군.
- ⑤ 토사구팽(兔死狗烹)을 당할 처지에 놓인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있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⑦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흔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러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琉璃窓)1」—

(나)

속이 검게 타버린 고목이지만  
창녕 덕산리 느티나무는 올봄도 잎을 내었다

잔가지 끝으로 하늘을 밀어올리며 그는  
한 그루 용수(榕樹)처럼  
제 ㉠아궁이에서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  
번개가 가슴을 찢개고 지나간 흔적을 안고도

저렇게 눈부신 잎을 피워내다니,  
 시커먼 아궁이 하나 들여놓고  
 그는 오래오래 제 살을 달여 내놓는다  
 낮의 새와 밤의 새가 다녀가고  
 다람쥐 일가가 세들어 사는,  
 구름 몇 점 별 몇 개 뛰어들기도 하는,  
 바람도 가만히 숨을 모으는 그 검은 아궁이에는  
 모든 빛이 모여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온다  
 까마귀 깃들었다 날아간 자리에  
 검은 울음 몇 가지가 뻗어 있기도 한다

발이 묶인 채 날아오르는 새처럼  
 덕산리 느티나무는 푸른 날개를 마약 퍼들고 있다  
 - 나희덕, 「성(聖) 느티나무」 -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나)는 계절적 배경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동적 심상을, (나)는 정적 심상을 주로 활용하여 시상을 확대하고 있다.
- ④ (가)는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나)는 자연을 인간에 빗대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보기>를 읽고 44번과 45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소재가 지닌 속성은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가)는 자식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을 투명하지만 차단성을 지닌 ‘유리’의 속성을 통해, (나)는 죽은 줄 알았던 느티나무가 생명을 이어가고 생(生)의 터전이 되어 주는 모습을, 스스로를 태우고 불을 피우며 온기를 품는 ‘아궁이’의 속성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유리’와 ‘아궁이’는 각각 단절과 소통, 소멸과 생성의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가 창밖의 세계에 있는 ‘너’를 만날 수 없는 것은 ㉠이 지닌 차단성에 기인한 것이겠군.
- ② (가)의 화자가 밤에 홀로 ‘유리’를 닦으며 소통을 시도하는 것은 ㉠이 지닌 투명성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겠군.
- ③ (나)의 ‘고목’이 발이 묶인 채 하늘을 밀어올리는 모습에서 ㉡이 지닌 소멸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고목’이 새들과 다람쥐 일가의 생의 터전이 되는 것에서 ㉡이 지닌 생성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고목’이 자신의 살을 달이는 모습과 이를 내놓는 모습에서 ㉡이 지닌 소멸과 생성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겠군.

45. <보기>를 바탕으로 아래의 탐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판단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탐구 과제]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의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가)와 (나)는 서로 대응되는 지점이 많은 작품입니다. 모듈별 토론을 통해 두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대응 요소들을 탐구하여 그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탐구 결과]

- A. 행위의 반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 B.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집약하여 제시함.
- C.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

대응 요소	판단 근거	
A	(가)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를 통해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나)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를 통해 자연의 부단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	(가)	‘외로운 황홀한 심사’를 통해 죽은 자식을 떠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모순된 심리를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나)	‘모든 빛이 모여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온다’를 통해 불에 타 버렸지만 생명을 이어가는 고목의 이중적 속성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C	(가)	‘산(山)새’는 화자의 품을 떠나 버린 작고 연약한 자식을 비유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자의 상실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나)	‘날아오르는 새’는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는 느티나무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죽음도 기꺼이 감내하는 나무의 수용적 태도를 상징하고 있다. .... 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